유럽의 통신자유화 : 초읽기

- 경쟁하의 CATV 사업위주로 -

□ **역자 : 김주현/** 한국통신 전략영업본부 CATV사업국 과장, TTA CATV연구위원회 의장

□ **저자 :** Richard Woollam

former director general of the UK, CCA and adviser to the EU and APEC heads ECN, a consultancy and research company involved the cableTV and telecoms industry throughout Europe.

1987년이후 유럽연합은 통신시장에 대해 회원국간의 완전 경쟁개방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통신시장에 대한 자유화를 진행해오는 도중 수많은 문제가 있어왔으며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자유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치 채택에 모든 회원국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결과 2개 유럽(Two-speed Europe)을 나타낸다.

유럽 연합중 30%의 나라(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칼, 스페인, 룩셈부르크)가 2003년까지 음성분야 자유화를 허용할 것이다. 반면에 나머지 나라들은 1998년 1월 1일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다(이러한 입장차이가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재검토하에 있고, 위원회가 철회할 지도 모른다.) 반면에 몇몇 회원국들은 그 이슈에 관해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러한 진행을 중지 시키기 위해서 더디게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유럽이나 중유럽 국가 등의 비회원 국가들은 자국의 통신 정책을 유럽연합과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전 유럽은 Cable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대체 Infra의 개념과 다른 Utility들을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생각이지만, 새로운 환경이 유럽 통신망(ECU:European Communication Network)으로 하여금 주요 유럽 국가에서 Cable 산업 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연구를 하도록 조심스럽게 추진해 가고 있다.

1997년 1~2월 두달동안 700개 이상의 Cable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통계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 Cable통신시장의 미래는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전략에 대한 긴박한 충돌이 발생한다면 기술방식 및 규제들이 바뀌어 질 수 있다. 유럽 전역의 3억6천6백만 가구중에서 65%가 현 Cable이나 위성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대한 시장으로 나타났다.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Cable 성장성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10년후 예상과 편차는 상당히 커질수 있음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직접 위성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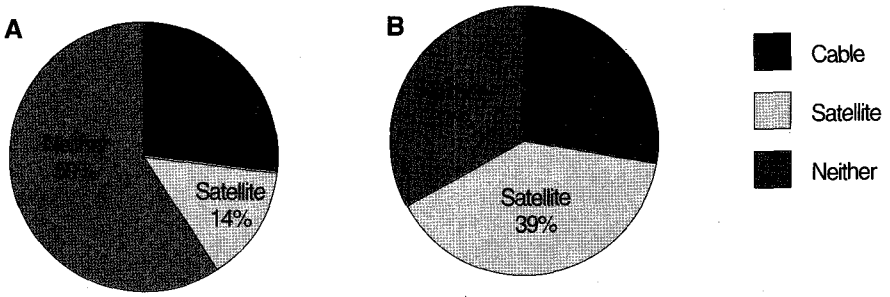

Fig. 1 CATV and DTH penetration In a) western Europe and b) eastern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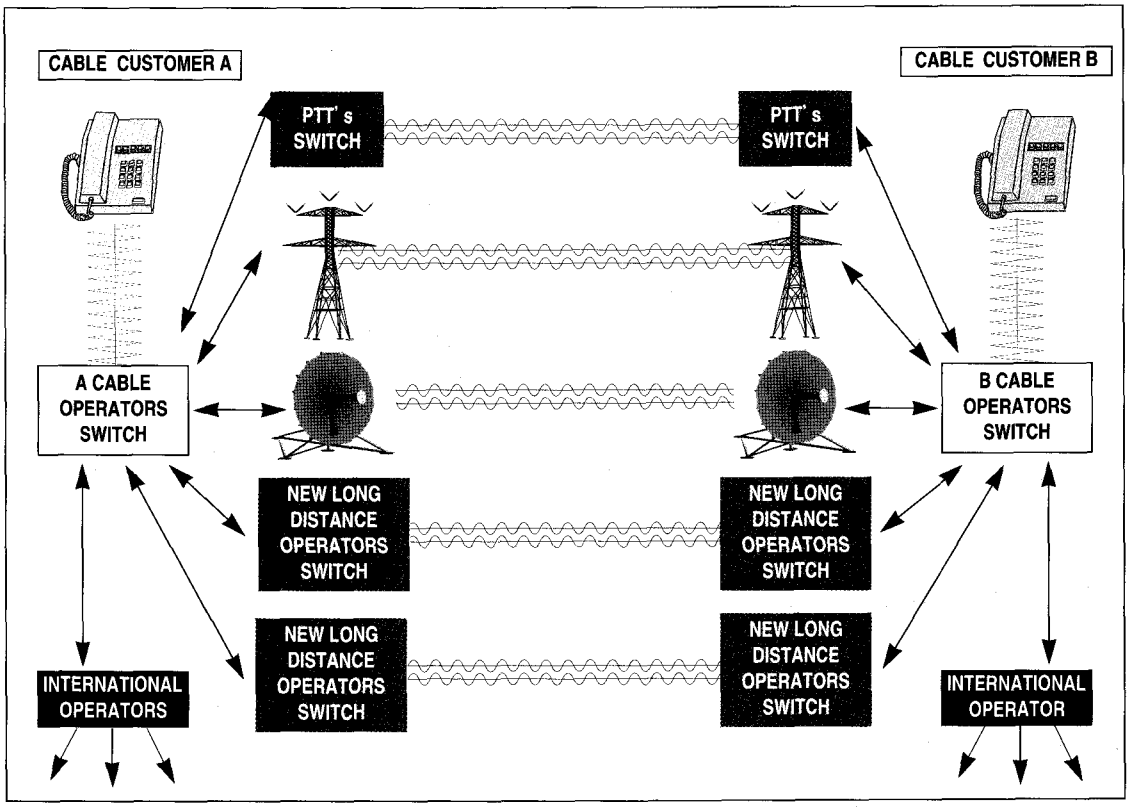

Fig. 2 Cable telephony in the local loop for least cost call routing

스인 경우에는 단지 7% 성장하는데 비해서 Cable TV서비스는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9%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전화,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럽 통신망은 Cable 인프라를 구축 또는 재구축하는데 1,400억 ECU의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Cable회사들은 부가서비스를 위한 첫 행보로 기존 네트워크을 고도화 시키고, 복잡한 요금 체계를 연구하여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표 1
CABLE AND SATELLITE FORECAST FOR EUROPE

	Homes 000s	TV Homes 000s	Homes Passed by Cable 000s	Homes Connected to Cable 000s	Connected as a % of Homes Passed %	Homes Taking Either a Cable or DTH Service 000s	% of TV Homes Without Cable or DTH Service %
March 97	366,245	258,040	101,610	70,360	69%	128,130	50%
2002	371,000	270,000	113,400	81,648	72%	151,848	56%
2007	380,000	285,000	134,600	104,988	78%	187,638	66%

주요 유럽 Cable회사들은 지금 막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法的 규제에 대한 제반 여건이 성숙해지면 지역망(Local Loop)의 Cable사업자는 자유화 진행 과정과 대체 경쟁 인프라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연일 언론 매체들은 외국의 협약에 의한 사업 측면이나, 매수, 합병, 그리고 여러 벤처사업(낙관과 비관 포함) 이야기를 전해 줄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은 지역망에서 여러 부류의 경쟁자(Player)들의 가치인 것이다.

정보고속도로를 향한 난관

미약한 PTT 권위, 불확실한 규제환경, 불균형적인 시장, 과연 무엇이 주요 유럽의 Cable 통신시장의 호기인가?

첫째 문제는 현재 Cable사업자들의 영업 능력과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벤네룩스 3국과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높은 홈패스율을 가진 다수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짧은 기간내에 사업자들이 일반전화 서비스 및 양방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적인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신속한 대응은 서비스 개발 제품에 대한 테스트 기회를 줄 것이지만 상용서비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이다.

만일 Cable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광네트워크로 구축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다른 해결책(Solution)이 제공된다면 시장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양방향 광대역 네트워크(Fully Interactive Broadband Network)가 나타날 것이다.

사업자들이 광케이블의 가격 하락을 주시하기 시작했으며, 광전송로를 구축할때 유지비용 절감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이지만 광케이블 포설은 많은 자본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음성분야 전화가 자유화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비 회수는 불가능할 것이다. Cable사업자들은 투자 및 현재의 단일 PTTs에 대한 몇몇 국가의 지속적인 자국의 시장보호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염려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현재 스페인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 곳에서는 자유화의 진행 과정을 제일 먼저 주시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매우 잘 발전된 듯이 보인다. 이것은 발생된 문제의 이면만을 본 것에 불과하다.

그 예로 스페인 정부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통신인프라 발전을 위해 자국내 많은 프랜차이즈 지역을 대단히 공식적으로 광고하고 있다.(케이블TV 및 전화를 통해서) 스페인 PTT인 "TELEFONICA"에서 분명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지역에 동일한 사업허가권들을 부여해 사업자가 사업권 허가를 받은 지 16개월이 지나도록 Cable TV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과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지지불가의 입장을 만들었다. 스페인 정부는 수백만의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자본 투자력을 창출할 수 있는 망을 건설해야 하며, 짧은 시간내에 유럽이 완전 경쟁체제에 놓인다는것을 "TELEFO-NICA"에서는 알고 있다.

두개의 유럽(Two-speed)은 업그레이드하기엔 노후하고 느린 네트워크, 자유화에 빠져 구축이 중단된 네트워크, 최적의 규제환경과 약간 진행된 인프라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의 품질층은 새롭고 매우 고속의 광네트워크 등 3개의 유럽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CableTV 산업계와 유럽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Cable TV 관련 법규 및 입법에 대한 통일된 접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표준화 작업에 더 큰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상호접속 및 여러가지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광대역 네트워크는 오랜 기간동안 해결책을 제공하여 줄 것이며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광대역네트워크를 다룰 기술적 능력이 문제인 것이다.

규제(Regulation) 및 입법(Legislation)

현실성없는 조치나 통제를 갖고 있는 미완의 규제환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률과 그에 따르는 규제는 지역망에서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유럽통신망(ECN) 회의에서 대다수의 케이블 사업자들과 참여자들은 전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이 새로운 전화 사업자들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확실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길 바란다. 이 같은 여론은 각 나라의 느린 규제 철회로서는 지역망경쟁시에 당면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평범한 규제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사에 응한 케이블TV 관계자들은 경쟁과 자유화에 대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은 정부와 입법자들이 결정할 전략적인 것이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입법자들은 DG IV, DG XIII, 전 유럽의 사업 고객이나 일반 주민들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의 선정과 경쟁을 갖게 할 대체 인프라에 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은 현재의 독점적인 사업자에게 비경쟁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예들은 유럽통신망(ECN) 회의에서도 많이 보여진다.

경쟁과 전략적인 마찰에 대한 2가지 이슈에 대한 한 예가 상호접속에 대한 문제이다(영국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서 독일 법정에서 다루어졌던 이슈다) 유럽의 어느 나라는 PTT회원국인 이웃 나라와 상호접속에 관한 동의사항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그 PTT회원국은 DG Ⅳ의 조심스러운 주시

하에서 즐거워 하겠지만 실제 협상이 시작될 때 대량요금 할인제(Volume discount)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들이 낮은 통화량(Volume of Traffic) 때문에 이웃 PTT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Cable회사에 똑같은 상호접속에 대한 계약서의 항목들을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에 PTT의 입장은 바로 경쟁과 광고였다.

또 하나의 예는 이론과 실제의 문제로 허용할 적자범위이다. 즉 허용요금에 대한 배분된 비용을 포함시켜야 할지 아닐지 규정하기가 어렵다(비용산정방법이 문제이다). Cable회사와 다른 신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지역망에 접속할 때 다른 나라와의 허용 요금 사이에는 많은 모순점이 발생할것이다.

이러한 것은 비 논리적인 요금을 정하게 되어 소비자들에게는 우회통화(Routing Call) 이용시 거의 살인적인 요금이 책정될 것이며,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신속한 결정을 바라는 Cable회사와 신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국제 통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신중히 주시해야 한다. 본 위원회에서 강력히 제시한 것은 막강한 권위와 세밀한 정책으로서 규제와 자유화 전 과정을 감독할 범유럽 중재자(Pan-European Medicator)에 대한 요구였다. 전 유럽의 Cable회사들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해서 경쟁의 공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쟁을 멈추어야 함을 본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지만 정책과 전략의 수행에 대한 다른 논쟁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술(Technology)과 전략(Strategy)

전 유럽에서는 국제적인 뉴스, 오락,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 대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국가간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주요 유럽 Cable회사들은 기술, 전략, 시장 개척에 있어서 지금 막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 아주 험난할 것이지만 UK와 비교해 볼때 다채널 텔레비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이미 도래했으며 쉽게 예상할 수 있다(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시대 돌입).

유럽통신망(ECN)은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함께 묶을 산업에 대한 결론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또 전 유럽에 걸쳐 우수한 센타 건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Cable산업은 전략과 기술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자국의 PTT와 정부정책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며, CATV회사 스스로가 주관을 갖고 행동해야만 한다. 자체의 표준화, 기술특정(Specifications) 그리고 사업자 상호간의 이슈,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등을 빠른 시일내에 정해야 한다.